

02

February 2025
vol. 28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Wedding, now



the Q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Contents

INCOMPARABLE ROMANCE

- 06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08_SELECTION 1**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디테일로 아름다운 신부의 순간을 완성한다.
- 09_VIVID IMPACT** 오색 빛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비비드 주얼리 셀렉션.
- 10_SELECTION 2** 품격 있는 신랑의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줄 감각적인 마스트 해브 아이템.
- 11_SMART CLASSIC** 뎀디한 매력이 돋보이는 남성 럭셔리 클래식 워치.
- 12_BLESSED IN SOLITUDE** 바르셀로나에서 자동차로 3시간가량,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도 고속 기차와 차로 비슷한 시간을 이동해야 다다를 수 있는 중간 지대의 한 마을에서는 흥미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름하여 '솔로 하우스(Solo Houses)' 프로젝트!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건축, 예술과 와인의 조화까지, 평생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을 떠났다.
- 14_갤러리를 둘러싼 창조성의 경계를 묻다** 건축에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면서 수익도 추구하는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에바 알바란과 크리스티앙 부르데. 마드리드와는 별개로 지중해 발레아레스제도의 아름다운 섬 메노르카에도 갤러리를 꾸리고 있다.



22

- 16_HISTORIC TIMEPIECE** 2백70년이라는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함께해온 바젤론 콘스탄틴. 올해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첫 번째 워치, 히스토릭(Historiques) 222를 선보인다.
- 18_EMBRACING THE OLD & THE NEW** 한국인들에게는 당분간 무비자 여행으로 가볍게 떠날 수 있게 된 중국의 도시 가운데, 첫 행선지는 난징(南京)이었다. 명나라 등 무려 10개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닌 고도(古都)인 난징은 오늘날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첨단 산업을 토대로 중산층의 동력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다. 문화 향유와 소비 잠재력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시민은 물론 여행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미술관이 빛어내는 '예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 20_GET THE LIST** 밸런타인데이와 웨딩 이슈까지, 사랑의 달을 맞아해 주목해야 할 잇템.
- 22_SO PRECIOUS** 가장 소중한 그 순간.
- 32_SAVOR THE MOMENTS!**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의 심장 바르셀로나의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Passeig de Gràcia) 한복판에 자리한 럭셔리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Mandarin Oriental Barcelona)는 문화 산책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 33_EFFORTLESS GLOW** 결점 없는 매끄러운 피뎀결로 자동 완성 가능한 요즘 쿠션.
- 34_EDITOR'S PICK** 찬 바람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회복해줄 스킨케어부터 설렘을 배가하는 향수까지 만나보는 이달의 뷰티 리스트.

© GRAFF.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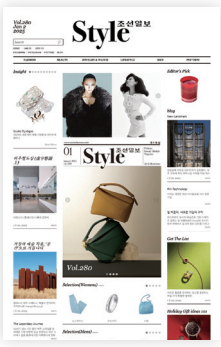
G R A F F



2025년은 바젤론 콘스탄틴이 탄생 2백7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창조와 전통, 혁신의 역사를 기리며 타임피스 히스토릭(Historiques) 222를 새롭게 선보인다. 1977년 매종 창립 222주년을 기념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요르크 하이sek(Jorg Hysek)이 디자인한 모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새로 도입하고 블루 컬러 다이얼을 장착해 모던한 미학을 자랑한다. 문의 1877-4306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kr



09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스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사랑의 세레나데

유니크하고 특별한 웨딩 주얼리를 찾고 있다면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은 보물을 발굴해 이를 꿈처럼 아름다운 매혹이 깃든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며 명성을 쌓아온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ph)를 추천한다. 스톤 및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아한 솔리테어부터 화려한 인게이지먼트 링, 클래식한 웨딩 밴드뿐 아니라 네크리스, 이어링, 티아라까지 다채로운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다. 순백의 신부처럼 깨끗하고 반짝이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컬렉션이 특별한 날을 더욱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문의 02-2150-2320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ovely Girls

키치스러움을 더해줄 패션 아이템 4.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방에 포인트로 달아 러블리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데디 백 참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8-1830. 크리스털 장식을 더해 화려하면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로쉬 비비에 헤어클립 리본 80만원대 **로저 비비에**. 문의 02-3479-6115. 귀 보온과 스타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시어링 램 스킨 이어머프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에 리본을 매치한 뎀서 발레리나 슈즈 가격 미정 **마르니**. 문의 02-772-3233.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행운의 주인공

살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선택과 기회는 스스로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코코 샤넬. 예측할 수 없었던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패션계의 역사적인 인물로 남은 그녀는 ‘행운’과 ‘기회’를 지닌 형수, 상수를 세상에 선보였다. 현재까지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로 손꼽히는 상수는 총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섬세한 플로럴 노트와 상큼한 과일 향이 어우러진 상수 오망드르를 보디 오일로 새롭게 출시한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보디뿐 아니라 헤어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스며들며 오랜 시간 은은하게 남는 잔향과 촉촉한 보습력이 특징.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상수 오망드르 보디 오일과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150ml 16만6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LUXURY PERFUME

Quiet Elegance

로로피아나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기예라 라인의 새로운 토트백인 기예라 쇼퍼를 공개했다. 부드럽고 둥근 실루엣이 특징인 이번 신제품은 블랭킷 스티칭 구조로 수작업 마무리 단계를 거쳐 로로피아나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넉넉한 핸들 디자인으로 토트백뿐만 아니라 솔더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가방의 측면을 당겨 고정시키거나 잠금을 풀어 보다 여유로운 핏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스물과 라지,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하며, 우수한 촉감을 위해 캐시미어 안감이 있는 그레인드 탄 브라운 누백 버전과 출시 (Horsey®) 재킷 안감에서 처음 선보인 패턴으로 이루어진 벨트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블루 네이비부터 캐러멜 슈가까지 다양한 컬러 팔레트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200-7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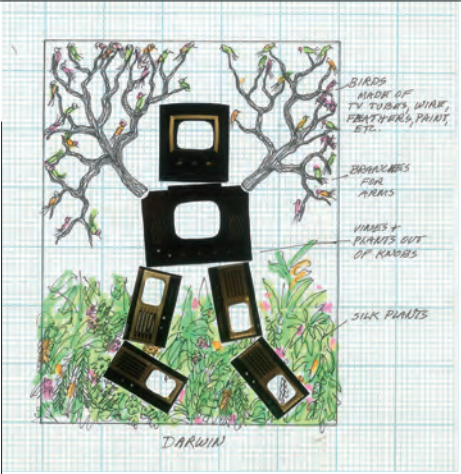


Be My Valentine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에르메스 워치에서 커플 워치를 제안한다. 먼저 남성 워치로 2021년 공개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H08을, 여성 워치로는 작년 새롭게 론칭한 에르메스 컷 컬렉션이다. 두 워치 컬렉션 모두 에르메스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세이프의 라운드 형태로 같은 컬렉션은 아니지만 시밀러 룩으로 연출 가능하다. H08은 직경 39mm 케이스에 슬레이트 파우더를 더한 복합 소재나 티타늄 모델로 선보이며, 에르메스 컷은 지름 36mm 스틸이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으로 제공된다. 문의 02-542-6622



순수함의 상징, 머더오브벌 다이얼을 품은 워치 3.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셀론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36.5mm 베젤과 리그에는 76개, 크라운에는 17개의 총 1,2개 컷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으며, 섬세하게 반짝이는 화이트 머더오브벌을 더한 다이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억3천5백만원. 문의 1877-4306 **디올 타임피스 라 디 드 디올 에두아르 드 방 타임피스 37mm** 0.28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핑크 골드 스타를 더한 자개 다이얼에 블랙 세틴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해 클래식하고도 화려한 무드를 연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블랑팡 레이디버드 컬렉션 문페이즈 미드나잇 블루 34.9mm** 초하루를 비율을 자랑하는 59개의 다이아몬드를 담은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머더오브벌 다이얼과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4천9백95만원. 문의 02-3479-1833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림**



백남준, 로봇 아카이브전
〈Human tech for future〉

불세출의 예술가 백남준(1932~2006) 손에서 탄생한 ‘로봇 작업’의 밑바탕이 된 아카이브 전시가 서울 두손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백남준과 협업을 시작해 작고하기 전까지 수석 디자이너 겸 기술 어시스턴트로 활동한 마크 파츠폴(Mark Patsall)의 자료 중 특히 로봇 제작과 관련된 자료만 엄선한 〈Human tech for future〉전이다. 1964년 ‘로봇 K-456’을 선보인 이래 일생에 걸쳐 로봇 작품을 제작한 백남준은 ‘내공’ 면에서 상당히 ‘인간적인’ 개성을 지닌 로봇 작품을 창조해냈다. 머리, 몸통, 팔다리 등 신체 각 부분의 모니타마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기 다른 영상이 송출되는데, 이를 통해 저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창기즈칸, 갈릴레오, 장영실처럼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작가의 친구를 모델로 삼기도 했기에 백남준의 로봇을 가리켜 ‘일종의 인물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백남준의 국내 첫 회고전 〈백남준, 비디오파·비디오망〉을 기획했으며, 이번 전시를 이끌고 있는 두손갤러리 김양수 대표 역시 미국 뉴욕에서 맺은 작가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로봇 모델이 된 지인’ 대열에 속한다. 김 대표가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기증한 ‘김양수 군경기따라지’(1990)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사진과 가슴 부분 모니타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 아카이브를 접할 수 있다. 오는 2월 28일까지. www.dusongallery.com

Legacy of Writing

역사적인 마이스터스틱을 다채롭게 선보여온 몽블랑이 동양 캘리그라피 예술을 기념하고자 ‘마이스터스틱 그레이트 마스터 캘리그라피 솔리테어 셀라르 데그라데 만년필’을 선보였다. 45도 각도의 곡선형 님을 장착해 손 글씨를 정교하게 구현해내고, 섬세한 선이 특징인 스케치 및 드로잉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청자에서 영감을 받은 제이드 그린 컬러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더한 반투명 래커로 장식해 전통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담았으며, 대나무 직조 공예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재해석한 골드 컬러의 인그레이빙으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클래식 마이스터스틱 디자인의 특징인 우아한 골드 피팅과 몽블랑 엠블럼으로 장식한 캡톱이 특징으로 소장용으로도 훌륭하다. 문의 1877-5408



My Destiny

가브리엘 샤넬에게 만남이란 우연과 운명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했다. 둥근 표면 위를 가로지르는 균일한 절개선이 돋보이는 코코 크라쉬 컬렉션은 이러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컬렉션이 올해 또 한번 다채로운 제품으로 한층 더 풍성해졌다. 18K 베이지·화이트·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새로운 네크리스와 이어링, 브레이슬릿과 링을 통해 샤넬만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캠페인에서는 영국의 뮤지션이자 DJ,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제이미 XX의 오리지널 곡 ‘It’s So Good’을 배경으로 제니가 등장해 감각적인 비주얼을 선보인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47캐럿의 다이아몬드 37개를 더한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1천6백만원대 **샤넬 확인 주얼리.**



반투명 아세테이트 소재에 핑크 컬러 렌즈의 선글라스 가격 미정 **올리버피폴스 by 에실로룩스티카.**

for her Selection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디테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순간을 완성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YOUNG, YOON JIYOUNG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프롬 세팅한 티파니 세팅 링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옐로 골드 소재에 총 1.0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90개가 반짝이는 에픽드 블레드 쇼메 브로치가 가격 미정 **쇼메.**

어떤 각도에서든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스와로브스키 지르코니아로 제작한 매트릭스 드림 이어링 24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비세토스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를 사용한 닥스훈트 비세토스 인형 75만원 **MCM.**



화이트 골드 소재에 로즈 컷 다이아몬드와 아코아진주로 우아함을 배가한 사라 티아라 가격 미정 **타사키.**



고급스러운 실크 새틴 소재에 리본 장식 디테일이 돋보이는 드레스 가격 미정 **엘리사브 by 소유브라이덜.**



론진 02-3479-1940 **샤넬 확인 주얼리** 080-805-9628 **타사키** 02-3461-5558 **디올 파인 주얼리** 02-3280-0104 **페르노리카 코리아** 02-3466-5700 **에실로룩스티카** 02-501-4436 **소유브라이덜** 02-541-7077 **펜디** 02-544-1925 **티파니앤코** 1670-1837 **셀린느** 1577-884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샤넬** 080-805-9628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MCM** 1600-1976 **쇼메** 02-1670-1180 **지미추** 02-3479-1837



파우더 룸의 둥근 चे어가 연상되는 카프 리더 소재의 백 참 80만원대 **펜디.**



실버 큐빅으로 완성한 리본 디자인의 헤어 클립 84만원 **셀린느.**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메탈 로고 버클이 포인트인 탑 핸들 스몰 토폴 백. 22x6x11.5cm, 가격 미정 **샤넬.**



드레스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작된 골드 메탈 소재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 70만원 **로저 비비에.**



발등과 스트랩에 빛나는 크리스탈을 더해 포인트를 준 빙 100 2백86만원 **지미추.**

샤넬의 자수 공방으로 유명한 아틀리에 문텍스와 협업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페리에 주에 벨레포크 오드 아라 뇌튀르 리벨로 by 아틀리에 문텍스 3,000ml 1억5천만원대 **페리에 주에 by 페르노리카 코리아.**



Vivid Impact

오색 빛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비비드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세르펜티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17캐럿, 2개의 페어 컷 에메랄드로 뱀의 눈을 표현했고, 총 1.48캐럿의 블루 사파이어로 포인트를 가미했다. 또 총 4.5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1억원대. 문의 02-6105-2120 **프렐라토 이코니카 멀티컬러 핑글 차보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핑크 투르말린, 블루 지르콘, 데만토이드, 레드 스파inel 각 2개와 페리도트, 루비 각 4개, 탄자나이트와 오렌지 사파이어 각 6개로 완성해 다채로운 매력을 배가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다미아니 마르케리타 이어링**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테이지 꽃의 형태와 볼륨을 정교하게 형성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프레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채로운 컬러 스톤으로 이루어진 버클과 스톤 라인 케이틀을 완성해 유쾌한 멋을 더했다. 3천6백78만원. 문의 02-514-3721 **타사키 오펜런스 네크리스** 목과 채굴 라인에 꽃들이 흠뻑려진 듯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리고 루비를 이용해 꽃잎과 잎사귀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스티븐 웹스터 CH2 태블릿 트위스터 슬림 링** 한쪽 면에는 총 5.18캐럿의 파이어 오팔레스트를, 다른 한쪽 면에는 총 5.03캐럿의 화이트 오팔레스트를 세팅해 반지를 돌려가며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윤자경**

영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블랙 사인 카프스킨
소재에 메달 시그너처 로고가
돋보이는 솔더백 가격미정 셀린느 옴므.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모노그램 온 탑 보타
25만원 루이 비통.

지속 가능한 해양 플라스틱
폴리머 소재로 보디를
제작한 MCM X HARPER
COLLECTIVE 라지 체크인.
약 27.9×52.4×79.1cm,
1백79만원 MCM.

댄디한 매력이 돋보이는 남성 럭셔리 클래식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비루 더머) 오메가 더 발 프레스지시 그레이 컬러의
타일처럼 도시직이면서도 세련된 기품을 배가한다.
40mm 두께를 유지하면서 커튼을 다쳤을 코-엑서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인 오메가
8800으로 구동한다. 18년월대, 문의 02-6905-3301
브리제 클래식 쿼터 피파수일 73278B 직경 39mm의 18K
하이트 골드 케이스가 절제되고 스피들을 둘러싸고, 1시간
2시 사이에 수직형 해머링 처리한 문피어지가 위치한다.
10시와 11시 사이에는 부채꼴의 레트로 그레이의 핸드를,
배치해 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
1008

까르띠에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새단 카친창한 대영
광신 모리셔스의 보리스 드 그리예르스 브라운 다나엘이
따뜻하리니 드 고르스루에 이지를 선사한다. 초탈 케이스에
오래매 워딩 머거니퀴 무브먼트 1847 MC를 장착했다.
1천1백만파니. 문의 1877-4326

오마파 파니코 11.59 바나 오마파 셀프앨로딩 수백
개의 작은 구멍으로 안면안각 처리한 동심원을 배치해
퍼프 무늬를 형성하는 컬렉션의 지그처터 다나엘 디자인은
스위스시계요제프수르문트 폰케리발의협업으로 완성했다.
이루다 38mm 14K핑크금 523-543-2999

블랑팡 빌라에 페르제우 켈렌더 8데이 지름 42mm의 18K 골드 골드 케이스와 그람 필링턴에 엔넬라 다이얼이 내린 가장 밝고 시원하고 클래식한 것으로 선사한다. 다이얼에는 페르제우 켈렌더와 문예이, 스톨 세켄즈, 얀넬라 엔넬라 문예이를 장식하며,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9447년 77월, 문의 02-3479-1833

피자제 941블랑팡은 원지 42mm 18K 골드 골드 케이스와 실링 필링턴이 조화롭게 이뤄진 클래식한 맛을 해가한다. 9447년 77월, 문의 02-3479-1833

소프터 L.C.XPS 스파티오 노비타처적 42mm의 18K 골드 골드 케이스와 노비타처적의 그라디 다이얼이 따뜻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COSC 인증을 받은 L.C.96.12-1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3년6개월 77월, 문의 02-6905-3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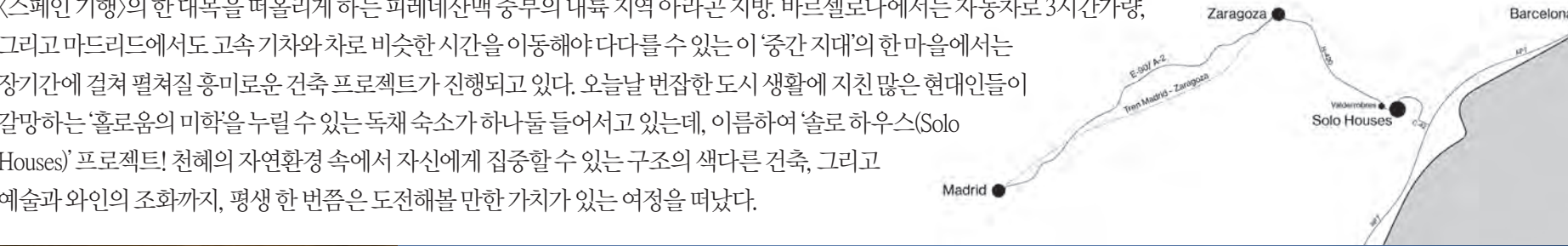
에디트 유자경

김희문 3월 7일

‘솔로 하우스(SOLO HOUSES)’ 프로젝트: 새로운 건축을 향해

Blessed in Solitude

‘한쪽 끝은 스페인의 거친 바위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은 멀리 프랑스를 향하고 있는...’ 그리스 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스페인 기행〉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피레네산맥 중부의 내륙 지역 아라곤 지방. 바르셀로나에서는 자동차로 3시간가량,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도 고속 기차와 차로 비슷한 시간을 이동해야 다다를 수 있는 이 ‘중간 지대’의 한 마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펼쳐질 흥미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홀로움의 미학을 누릴 수 있는 독채 숙소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는데, 이름하여 ‘솔로 하우스(Solo Houses)’ 프로젝트!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의 색다른 건축, 그리고 예술과 와인의 조화까지, 평생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을 떠났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In the Middle of Nowhere)! 창조성의 고삐를 되도록 옥죄지 않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솔로 하우스(Solo Houses)’에 대해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꽤 길고 먼 여정임에도 귀가 솔깃했던 건 그토록 외진 산속에 독채 형식으로 건물이 독특하게 솟아 있다는 ‘경치의 미학’이 미묘한 사진만으로는 도저히 와닿지 않아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뻔뻔한 유럽 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고 술한 사람들을 스치면서 쌓인 심신의 피로를 씻어내기엔 적합한 곳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홀로 있음은 겁내지 않는 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다(Blessed are Those You Do Not Fear Solitude, Who are Not Afraid of Their Own Company)**”
by 파울루 코엘류

라는 기대를 품게 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창에서 보이는 지도상의 큰 행선지는 피레네산맥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스페인 자치 지역인 아라곤 지방! 사라고사, 우에스카, 테루엘 등 3개의 주로 이뤄져 있는 이 고원지대를 향해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했을 때의 풍광은 뜨겁지만 낯선 느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쾌했다. 그저 모든 햇살이 축복의 세레나데처럼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랄까. 한참을 달리노라니 어느새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풍경이 연속적으로 펼쳐졌다. 온통 나무와 바위로 뒤덮인, 자못 메말라 보이는 산들의 파노라마. 카페인의 힘으로 졸음을 견디다 드디어 목적지 근처의 팻말을 보니 처음인데도 반가움이 치솟았다. 솔로 하우스 기행의 시작점인 벤타 도베르(Venta d'Aubert)라는 와이너리였다.

자연과 예술의 조화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와이너리
등글고 완만한 아치를 그리는 작은 산이 멀리 보이는 배경에, 돌벽을 두른 아담한 농장 같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앞뜰에는 하얀 조각이 커다란 수호신처럼 놓여 있었다. 198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이 와이너리의 라인업을 한번에 꿰뚫어볼 수 있는 2층짜리 ‘본부’다.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 제작업체를 이끄는 스페인 출신의 에바 알바란(Eva Albarrán)과 그녀의 남편인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티앙 부르데(Christian Bourdais) 커플이 인수한 이 와이너리는 2022년부터 그들이 이끄는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해사한 공간에 와인과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건물 내부는 더 사랑스럽다. 현대미술과 건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에바-크리스티앙 커플의 커플의 배경을 잘 살려 아티스



트와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정판 와인 레이블이 눈길을 잡아끄는데, ‘솔로 100’에서 ‘솔로 500’에 이르는 지중해 감성의 와인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2013년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18ha(약 5만4천4백 평) 면적의 와이너리에서 내놓는 연간 생산량은 5만 병 수준이다. 나른한 오후 공기를 들이마시며 포도밭 주위를 잠시 거닐다가 여장을 풀러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졌다. 그새 옷깃에 살짝 스며든 듯한 새콤달콤한 와인 향내는 기분 좋은 ‘담’이었다.

옛 아라곤왕국의 고원지대에 ‘나 홀로’ 피어난 건축
동·서양의 선현들이 일찍이 찬양했던 ‘행복한 고독’을 갈망하는 나그네들의 이상적인 숙소로 여겨지는 솔로 하우스는 어둑거나 캄캄한 밤이라면 웬만해선 헤매지 않기가 더 힘들 듯한, 정말이지 인적도 없고 길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수풀만 우거진 땀땅에 나 홀로 솟아오른 요새처럼 유유히 터를 잡고 있는 건축물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라곤 지역의 마타랴나를 수놓고 있는 무려 200ha(60만5천 평)의 광활한 땅을 토대로 2010년 시작된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는 에바-크리스티앙 커플이 패기와 열정을 지닌 15개의 건축 스튜디오를 초청해 창작의 자유도를 한껏 끌어올린 휴가용 별채(임대용 독채)를 설계하는 과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로는 KGDVS(Office KGDVS)와 페조(Pezo von Ellrichshausen)의 건축물만 들어서 있는데, 전자는 도넛처럼 가운데가 뚫린 원형 구조를 따라 침실, 옷방, 샤워실 등의 시설이 직렬 형태의 동선으로 주욱 이어지는 대형 숙소이고, 후자는 마치 남겨져지 같은 땅 위에 최소한의 받침대만으로 지지되는 듯한 인상적인 파빌리온이다. 얼마든지 단기로도 빌릴 수 있고 예약은 필수다(www.solo-houses.com, 1박당 5백 유로 수준에서 시작한다). 둘 다 천혜의 풍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을 뿐, 내부에는 TV 같은 오락 기기도 없고 벽에는 그림 하나 걸려 있지 않다(인터넷은 가능하다). “상업적 제약에서 벗어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계 지침을 담은 디자인 브리프가 없었죠. 물론 어느 정도 예산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요.”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를 주로 맡고 있는 크리스티앙 부르데는 “2028년께 칠레 건축가 스미란 라딕(Smiljan Radic)이 설계를 맡은, 25개 원형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갖춘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가예겐 자유로운 창의성을, 여행자에겐 사유의 시간을
사실 현재의 두 숙소 공간은 언뜻 보기에는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매끈한 재질과 연결 고리를 강조하는 KGDVS의 솔로 오피스는 다분히 컨템퍼러리 감성이 엿보이고, 이에 반해 페조의 ‘솔로 페조’는 거친 표면과 직선적 디자인을 강조하는 브루탈리즘 요소가 강하게 묻어난다. 그러나 두 숙소는 일부러 짜기라도 한 듯 중요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 기능을 갖춘 작은 공간이 ‘열린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KGDVS의 탁 트인 원형 숙소야 당연히 ‘연결’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지만, 외견상으로는 딱 떨어지는 사각의 단절된 공간처럼 보이는 페조의 숙소 역시



1, 2, 3 스페인 북동쪽 아라곤 지방의 크레타스(마타랴나)에 자리한 건축 스튜디오 페조의 건축물 내·외부. 단기 임대 가능한 별장이며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설계된 독채 별장이다. 건축 스튜디오 페조는 2인의 건축가가 2002년 창립한 스튜디오로 칠레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5**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인 와이너리 벤타 도베르(Venta d'Aubert)의 건물과 포도밭. 2013년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에서 연간 5만 병의 와인을 생산한다. **6** ‘솔로 100’에서 ‘솔로 500’에 이르는 지중해 감성의 와인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7, 12, 13** 벨기에 브뤼셀 기반의 건축 스튜디오 KGDVS(Office KGDVS)가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로 선보인 독채 건물. 도넛처럼 생긴 원형 건물에 침실, 옷방, 휴식 공간 등 독립된 기능을 갖춘 공간이 일렬로 이어지는 식으로 설계된 ‘연결’의 감성이 흥미롭다. 가운데에는 수영장이 있다.



8, 9, 10, 11 녹음 짙은 공원에 자리한 솔로 하우스 부지는 면적 200ha에 이르는데,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와 협업하는 다국적 작가들이 선보인 조각 작품을 곳곳에 설치해 아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역토르 자모라(Héctor Zamora)의 ‘Truth always appears as something veiled’, 클라우디아 콤테(Claudia Comte)의 ‘Burning Sunset’, 모나 하툼(Mona Hatoum)의 ‘Orbital’, 슈퍼플렉스(Superflex)의 ‘THERE IS AN ELEPHANT IN THE ROOM’ 등의 작품이 있다. ※ 1, 3~13 이미지 © Albarrán Bourdais

각 방(공간)이 서로 이어지도록 벽으로 막지 않고(문은 있지만) 결국은 다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가운데에는 수영장이 있다). 그래도 저마다 각자의 작은 공간에 있노라면 방해받지 않고 그저 자연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성을 품고 있다. 강강술래를 하듯 흥미로운 연결성을 바라다보면 원형 공간이, 정제된 틀 속에서 ‘평온한 고립’을 즐기곤 한다면 사각 공간이 안정맞춤인 대조미가 재미나다. 확실한 건 두 유형 모두 ‘숙세’와는 선을 확실히 그은 느낌의 공간과 주변 환경에 둘러싸인 만큼, 힐링을 추구하든, 일에 집중하길 원하는 순도 높은 고독을 누리면서 여전히 소소한 교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외부와의 호흡이 고프다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출중한 아티스트들의 조각 작품이 자연 속에 흠어져 있는 ‘조각 산책(Solo Sculpture Trail)’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 자연만이 거주하는 듯한 넓은 지대에 서 있는 독특한 건축과 조각의 향연이 빚어내는 효과는 경치가 반드시 자연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영국의 전친후 크리에이터 토머스 헤티워의 주장을 상기하게 만든다. ‘이곳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강력한 장소성을 갖춘 곳! 바로 이러한 면모 때문에 단 하루밤의 체류를 위해서라도 여행자들은 길을 떠나는 게 아니겠는가. 글 **고성연**(스페인 현지 취재)

Interview with_에바 알바란(Eva Albarrán) & 크리스티앙 부르데(Christian Bourdais)

갤러리를 둘러싼 창조성의 경계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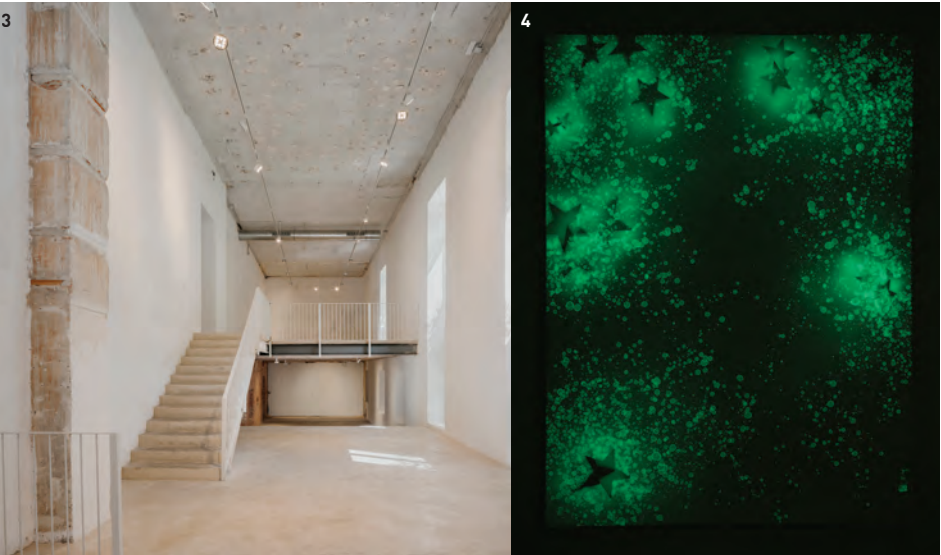
건축에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주면서 수익도 추구하는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에바 알바란과 크리스티앙 부르데. 한 쌍의 부부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끈끈히 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 커플의 직업적 정체성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다면적이면서 유기적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태생으로 파리에서 공공 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 제작과 설치(art production)를 하는 내실 있는 사업체를 꾸려온 에바 알바란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공을 다진 건축, 그리고 예술의 확장에 대한 관심으로 크리스티앙과 함께 2010년부터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히 건축을 입힌 숙박업이 아니라 현대미술 전시도 열고, 작가와의 협업도 진행하며, 와인 사업까지 녹인 다각형 플랫폼이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신들의 성을 따 이름 붙인 상업 화랑인 알바란 부르데(Albarrán Bourdais)를 마드리드에 열었다. 또 마드리드와는 별개로 지중해 발레아레스제도의 아름다운 섬 메노르카에도 갤러리를 꾸리고 있다. 유기적 시너지를 뽑어내는 자신들만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커리어 여정이 참신하게 와닿는다.

“저는 미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전공했어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적이 결코 없었지만요. 그렇지만 늘 미술 생태계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싶었죠.” 자그마한 체구에 선하면서도 다부진 눈매를 지닌 에바 알바란은 사업을 했던 자신의 부모가 같은 길을 걷길 바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두 장기를 살려 조합까지 하는 시너지를 거둔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녀는 배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갤러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마드리드 태생인 그녀는 1990년대 후반 파리로 떠났고 매리언 굿먼 갤러리에서 어시스턴트로 경력을 쌓아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미술 제작’의 잠재성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맞닥뜨린다.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세계적인 미술 축제를 위한 작품 설치를 하던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같은 작가와 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바는 2004년 자신의 이름을 붙인 회사(Eva Albarrán & Co.)를 파리에 창립하고 제작 사업에 전격 뛰어들었다. 굵직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전문성을 갖추고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실력 있는 ‘아트 프로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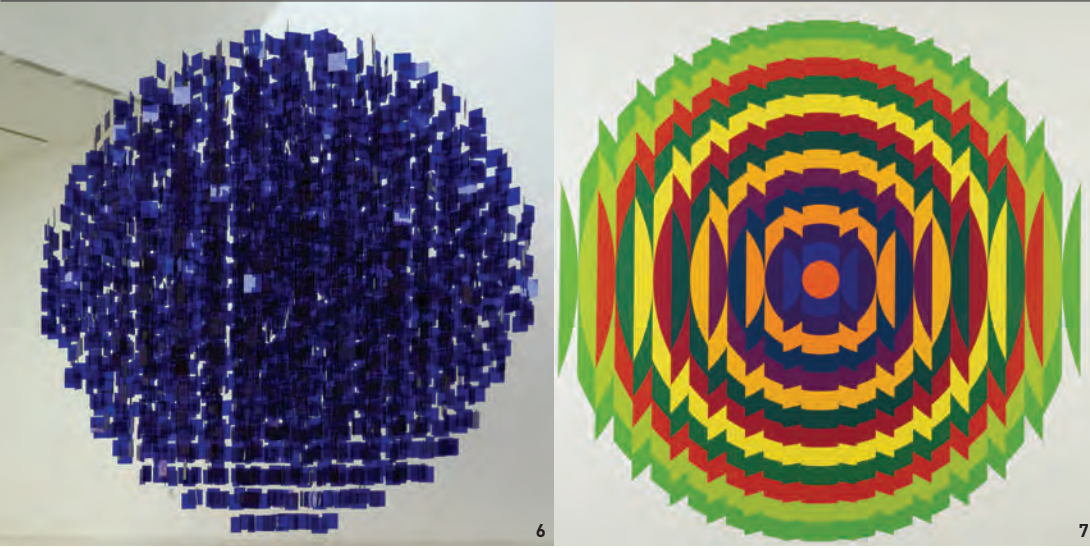
1 스페인 출신의 에바 알바란과 그녀의 파트너이자 남편인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티앙 부르데 커플. 2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에 자리한 알바란 부르데(Albarrán Bourdais) 갤러리. 3 마드리드 갤러리의 내부 모습. 4 2020년 마드리드 갤러리에서 열린 구정아 작가의 개인전 〈Radiant 2020〉에서 선보인 작품. 구정아(Koo Jeong A), ‘Seven Stars’, 2019. © Pablo Gomez Ogando 5 지난해 가을 마드리드 갤러리에서 개막한 에ктор 자모라(Héctor Zamora) 작가의 전시 모습. Photo by 고성연 ※ 1~4 이미지 © Albarrán Bourdais 홈페이지 | <https://albarran-bourdais.com>

션’ 업체로 키워냈음을 자부하는 그녀는 초기부터 인연을 맺었던 피에르 위그를 비롯해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ÿs),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카테르 아티아(Kader Attia), 나가와 후지코(Fujiko Nagawa) 등 쟁쟁한 다국적 작가들을 20년에 걸친 협업 명단에 올려두고 있다. “제작자로서 맡은 첫 프로젝트도 피에르 위그의 미술관 설치 작업이었죠.” 일의 성격상 작가들은 물론 설치를 담당하는 벤더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는 자연스레 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2010년 스페인 아라곤의 크레타스(마라타냐 지역)에서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물론 부지도, 자본도, 인력도 만만치 않게 요구되는 워낙 덩치가 큰 일이라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줄곧 제작 사업을 맡아왔고, 크리스티앙은 주로 솔로 하우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M A D R I D

신생 갤러리의 폐기와 제작 마스터의 노련함을 동시에 그렇다면 2018년 마드리드에 공간을 열면서 뛰어드는 갤러리 사업은 어떻게? 알바란 부르데(Albarrán Bourdais)라는 이름으로 꾸리고 있는 만큼, 둘 다 갤러리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연스럽게 커리어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수순처럼 갤러리 비즈니스의 길로 인도한 촉매제 역할을 한 인물은 이 커플에게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프랑스의 현대미술계 거장이다. 수년 전 작고했지만 그들



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1944~2021)다. 그는 “늘 갤러리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고, 이들이 갤러리를 차리자 기꺼이 함께 협업을 했다.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가 마드리드에서 연 첫 번째 전시는 그룹전이었는데, 당시에도 볼탕스키를 비롯해 베르트랑 라비에, 카를로스 아모랄레스, 도미니크 곤잘레스-포에르스터 등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계열 작가들이 포함됐다. 미술계 특유의 관계성만 작용한 게 아니라 제작과 설치 부문에서 무르익은 알짜배기 내공이 함께 경쟁 우위로 빛을 발한 덕분에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는 아트 바젤이나 아르고 마드리드 등 주요 아트 페어에도 자주 참가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가을 프리즈 서울 주간에 개막했던 K&L 뮤지엄의 전시를 위해 방한하기도 했던 스위스 작가 클라우디아 콤테(Claudia Comte),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주인공이었던 구정아 작가 등 20여 명이 현재 다국적 크리에이터들로 이뤄진 갤러리 소속 작가 명단에 들어 있다.

M E N O R C A

지중해의 숨겨진 보석 같은 섬에 자리한 또 다른 공간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의 위치 선정은 갤러리 공간만 봐도 탁월함이 느껴진다. 카스티야 지역에서는 마드리드 중심가에 있는 로에베의 옛 워크숍 자리에 동자를 튼 데 반해, 지중해를 낀 발레아레스제도의 메노르카섬에서는 유서 깊은 극장 앞에 있는 건물에 매력적인 갤러리를 열었다. 메노르카는 하우저엔워스 같은 메가 갤러리의 전시 공간이 들어서면서 ‘예술의 섬’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스페인 출신인 에바와 파트너인 크리스티앙에게는 휴양지로 ‘애정하던’ 섬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4년 전 좁은 건물을 매입하고는 제2의 갤러리를 열 준비에 나서게 된다. “우리 가족은 휴가철이면 발레아레스제도의 섬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바서는 자꾸만 번잡해지고 있었고, 마요르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섬이었어요. 우리는 메노르카와 사랑에 빠지게 됐죠.” 이 커플은 메노르카에 아름다운 전시 공간을 꾸릴 건물을 찾게 됐을 때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와 의논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받



6 얼마 전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에 합류한 소속 작가 훌리오 르 파르크(Julio Le Parc)의 작품. Julio Le Parc, ‘Série 16 n°12 Permuté’, 1971~2024. Acrylic on tela. © Atelier Le Parc. Cortesia Albarrán Bourdais 7 Julio Le Parc, ‘Sphère Bleu foncé’, 2013. Plexiglass azul, madera, nylon, metal. © Atelier Le Parc. Cortesia Albarrán Bourdais 8 클라우디아 콤테의 작업. 지난해 프리즈 서울 주간에 막을 올린 K&L 뮤지엄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Claudia Comte, ‘Hummingbird on a tree’, 2024. Courtesy the artist, K and L Museum, Seoul & Albarrán Bourdais 9 스페인 발레아레스제도에 있는 메노르카에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가 지난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10 2021년 여름 알바란 부르데 갤러리의 메노르카 공간에서 처음 연 전시인 프랑스 현대미술 거장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전시 풍경. 작가의 유고전이 됐다. 11 ‘작사 효과로 유명한 펠리체 바리니의 메노르카 전시 모습(2024년 가을). 12 지난해 말 메노르카 갤러리에서 시작한 그룹전 모습.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아드리앵 베스코버의 작품이 보인다. ※ 6~98 10~12 이미지 © Albarrán Bourdais

긴 볼탕스키는 머지않아 섬을 찾아 공간을 보고는 머리를 맞대고 전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갤러리를 정식으로 열기도 전에, 2021년 여름 그의 개인전을 메노르카에서 선보이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개막 직전에 볼탕스키가 작고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오프닝 파티 대신 작가의 창조 혼을 기리는 첫 유고전이 된 셈이다(같은 해, 우리나라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볼탕스키의 사후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그저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뭔가 애틋해지는 전시다. “네, 아주 특별한 전시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눈가가 축축해지게 만드는 볼탕스키와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 듯했다. 그 뒤로 갤러리가 다시 문을 열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다. 재단장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고 수리를 거친 끝에 지난해 여름 방문객을 맞이하게 됐다. 첫 전시는 현재 DDP에서 개인전 〈색·모양·움직임〉이 진행 중이기도 한 펠리체 바리니(Felice Varini)가 장식했다. 서로 다른 길을 지닌 마드리드와 메노르카의 갤러리 공간을 보면 문득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문구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스페인인은 온통 빛으로 넘실대며, 내 마음도 날개를 펼치고 천천히 두 바다 사이를 유유자적하는 수공작처럼 요동한다.’ 글 고성연(스페인 현지 취재)





Historic Timepiece

처음 시계가 탄생한 순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무려 2백70년이라는 위치메이킹의 역사를 함께해온 메종 바세론 콘스탄틴. 올해 이를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첫 번째 위치를 선보인다. 바로 히스토리(Historiques) 222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온 탁월함과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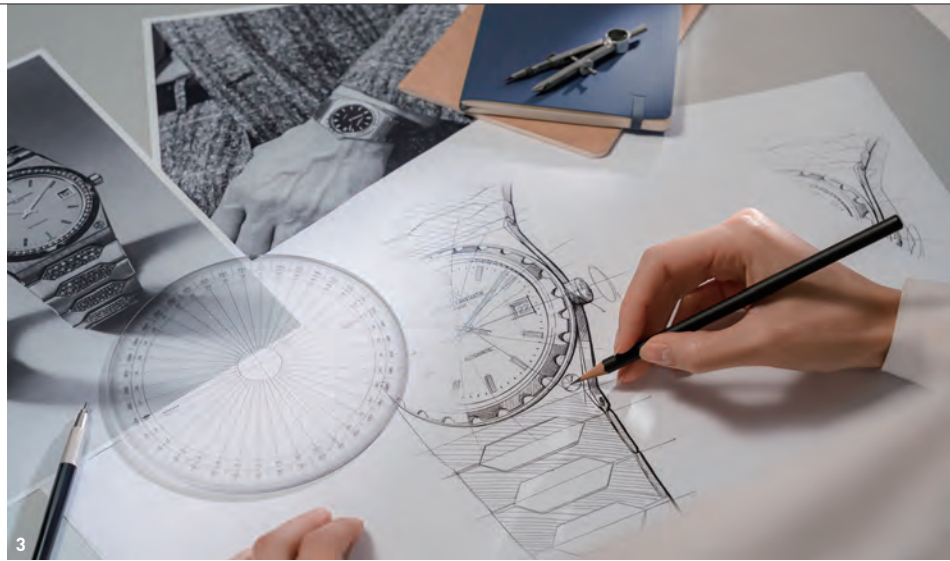
2025년은 바세론 콘스탄틴이 탄생한 지 2백70년이 되는 해다. 위치메이킹 역사와 함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메종 바세론 콘스탄틴은 1755년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족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장-마크 바세론(Jean-Marc Vacheron)의 위치메이킹 견습생 계약 체결을 통해 탄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대를 거듭하며 열정과 결단력을 가지고 위치메이킹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탐구의 여정을 이어갔다. 그 후로 2백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바

“**창립 2백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메종은 빈티지한 감각이 돋보이면서도 확연히 모던한 매력이 묻어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과거와 현재를 함께 엮어내고자 합니다**”
by CMO 알렉산드라 보글러(Alexandra Vogler)

세론 콘스탄틴은 창립 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개방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에 힘입어 독창적인 특성을 만들어왔다. 1819년 창립자의 손자 자크 바르텔레미 바세론(Jacques Barthélemy Vacheron)은 새 비즈니스 파트너인 프랑수아 콘스탄틴(François Constantin)으로부터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받았고, 이 격언은 오늘날까지도 메종의 모토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세론 콘스탄틴이 위치메이킹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일 것이다. 탁월한 기술력, 예술적 감수성, 기계적인 정교함과 장인 정신, 혁신과 우아함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위치메이킹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 역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성취와 위치메이킹의 혁신을 담은 2백70년의 역사

바세론 콘스탄틴은 위치메이킹의 역사 전반에 걸쳐 대담한 창의성을 발휘해왔으며 이는 특히 하이 컴플리케이션과 정확한 타임키퍼 분야의 수많은 혁신으로 이어졌다. 1790년 메종의 아카이브에 기록된 최초의 캘린더 타임피스부터 63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2024년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더 버클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에 이르기까지 메종은 차임 시계, 짧은 시간 측정을 위한 메커니즘, 천문학 기능, 스페셜 디스플레이, 투르비용 레귤레이터 같은 다양한 기술적 표현의 영역을 탐구해왔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 및 개발의 여정을 거치면서 타임키퍼 메커니즘뿐 아니라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등 주요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이 초창기부터 다른 위치메이커와 차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정교한 기계공학을 추구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지향하는 미학적 장인 정신을 동시에 길러왔기 때문이다. 바세론 콘스탄틴 자체에 마련된 장인 기술 공방에서는 전문 장인들이 인그레이빙, 쉘 세팅, 에나멜링, 기요세 등 다양한 기술을 마스터해 타임피스를 미니어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메종 창립 초기부터 이어온 철



학을 지켜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바세론 콘스탄틴만의 세련되고 모던하면서도 미학적인 위치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이는 타 위치메이킹 메종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노하우가 되었다.

중대한 해를 기념하는 특별한 타임피스

바세론 콘스탄틴은 1955년 브랜드 창립 2백주년을 기념한 위치를 시작으로 10년마다 메종이 쌓아온 전문 기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타임피스를 발표하며 특별한 해를 기념해왔다. 2005년에는 메종 창립 2백50주년을 맞이해 ‘투르 드 릴(Tour de l’Île)’ 위치를 공개했다. 이는 무브먼트인 칼리버 2750으로 구동하는 시계로 양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16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역대 손목시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로 자리매김했다. 창립 2백60주년이 되는 해에는 남성 및 여성 모두를 위한 쿠션형 케이스를 장착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성한 하모니(Harmony) 컬렉션이 등장했다. 두께 8.4mm 케이스에 자리 잡은 하모니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은 4백59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두께가 단 5.2mm에 불과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 3500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대담한 창의성의 상징, 히스토리 222 스테인리스 스틸 위치

창립 2백7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바세론 콘스탄틴의 열정을 기념하고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첫 위치로 히스토리(Historiques) 222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선보인다. 이 모델은 메종 창립 2백22주년을 기념하며 1977년 처음 공개된 전설적인 작품이다. 요르크 하이섹(Jorg Hysek)이 디자인했으며, 당시 주로 파일럿, 다이버, 탐험가를 위한 전문 모델로 여겨졌던 스포츠 시계의 관례에서 벗어나 포멀함과 스포티함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담아냈다. 그 후에도 222는 스포츠 시계의 전통적 특성에서 벗어난 1970년대 디자인의 정수를 담아내며 메종의 새로운 시그니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장착된 케이스는 평평한 테이블, 플루티드 베젤과 5시 방향에 장식된 말테 크로스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스크루 다운 베젤로 120m 방수 성능을 자랑한다. 시, 분, 날짜 표시 기능을 갖췄음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단 3.05mm 두께의 폴 로터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울트라-신 칼리버 1120을 장착해 전체 두께가 7mm에 불과한 점도 놀랍다. 이 같은 우아한 디자인과 균형을 이루는 심플한 배터닝 행즈와 아이워 키, 커다란 육각형 중앙 링으로 구성된 브레이슬릿은 견고하고 당당한 느낌의 모던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특히 222는 전설적인 타임피스로 1970년대 후반, 당시 초기 생산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수집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특유의 매력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바세론 콘스탄틴이 출시한 시계 중에서도 특히 잘 알려진 모델이다. 이번 2025년 바세론 콘스탄틴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점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직경 37mm 위치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루 컬러의 다이얼을 장착한 새로운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해석된 이 위치는 여러 기술적 개선을 거쳐 완성되었다. 브레이슬릿의 연결 부위는 트윈 블레이드 클래스프 대신 트리플 블레이드 클래스프를 장착했으며, 핀이 걸로 드러나지 않고 인체 공학적으로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케이스 뒤편에는 바세론 콘스탄틴 탄생 2백70주년을 기념하는 시그니처가 새겨져 있으며,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통해 인하우스 칼리버 2455/2를 감상할 수 있다. 칼리버 직경은 이전 모델보다 약간 작고, 두께는 여전히 3.6mm에 불과하다. 이 고정밀 무브먼트의 로터에는 오리지널 222 로고가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베젤을 연상시키는 플루티드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다. 2.75Hz의 진동수를 제공하는 오리지널 모델 대비 4Hz(시간당 2만8천8백 회 진동)로 박동하는 이 무브먼트는 항상된 정밀도를 자랑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다이얼의 날짜 표시창은 미닛 트랙을 가리지 않도록 중앙으로 이동했고 ‘AUTOMATIC’ 문구에 적용된 빈티지 스타일의 폰트 및 행즈와 인덱스의 슈퍼루미노바® 코팅(낮에는 오프화이트, 밤에는 라임 그린 컬러로 구현)은 과거 타임



1 브랜드 탄생 270주년을 맞아 새로 출시하는 히스토리 222 위치를 착용한 모습.
2 우아한 블루 다이얼과 스틸 스트랩의 조화가 시선을 사로잡는 히스토리 222 위치.
3 새로운 버전의 히스토리 222 위치가 탄생하는 과정.
4 슈퍼루미노바® 코팅으로 낮에는 오프화이트, 밤에는 라임 그린 컬러로 구현된다.
5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을 모두 갖춘 히스토리 222 위치.

피스에 사용된 트리플 컬러를 연상시킨다. 크라운, 브레이슬릿, 베젤 등 여러 부분에 수직 세팅 브러싱과 폴리싱을 결합해 매혹적인 빛 효과를 연출하는 마감 처리에서는 디테일에 집중하는 바세론 콘스탄틴의 세심한 감각이 엿보인다. 바세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리 컬렉션에 속하는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222는 메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새롭게 선보이는 2025년 모델은 오리지널의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간직함과 동시에 세련되고 정교한 디자인, 편안하면서도 여유로운 감각, 탁월함을 추구하는 타협하지 않는 헌신과 같은 메종의 핵심 가치를 완전히 현대적인 해석으로 구현한다. 올해, 메종은 빈티지한 감각이 돋보이면서도 확연히 모던한 매력이 묻어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과거와 현재를 함께 엮어내는 의미를 더하고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위치메이킹 스타일의 지점서와 같은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정성민



더지 미술관(Deji Art Museum)_주목할 만한 난징(Nanjing)의 문화 예술 플랫폼

Embracing the Old & the New



한국인들에게는 당분간 무비자 여행으로 한걸 가볍게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중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필자의 첫 행선지는 난징(南京)이었다.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를 비롯해 무려 10개 나라의 수도였던 만큼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닌 고도(古都)이고 ‘매화’를 상징으로 내세운 이 도시는 난징조약, 난징대학살 같은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상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운’의 이미지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날 난징은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첨단 산업을 토대로 중산층의 동력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다. 자연스럽게 문화 향유와 소비 잠재력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시민은 물론 다국적 여행자에게도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미술관이 빛어내는 ‘예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매화의 기상을 품은 고도(古都)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長江)이 흐르는 장우성의 성도인 난징은 베이징, 뤼양, 시안과 함께 중국 4대 고도(古都)로 꼽힌다. 이 역사적인 도시의 황금기 중 하나는 육조 시대로 동오(东吴), 동진(东晋), 송(宋), 제(齐), 양(梁), 진(陈) 등 여섯 왕조가 3세기에서 6세기까지 난징을 수도로 삼으며 이어진 시기를 말한다. <삼국지>에 나도는 그 유명한 적벽대전을 치르고 동오의 기반을 다진 손권이 당시 말릉이라 불리던 강남(양쯔강 남쪽)의 난징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새 나라의 기상을 일으켰고, 물산이 풍부하던 이 도시는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됐다. 난징의 오랜 역사를 들여다보면 손권을 비롯해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인물들이 주로 회자되지만 기원전 춘추 시대로 올라가노라면 훗날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고사성어로 잘 알려진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천이 등장한다. 춘추 시대에 난징은 오나라 땅이었는데, 기원전 333년 월나라를 무너뜨린 초위왕이 점령하면서 초나라 땅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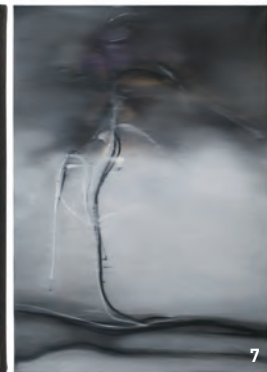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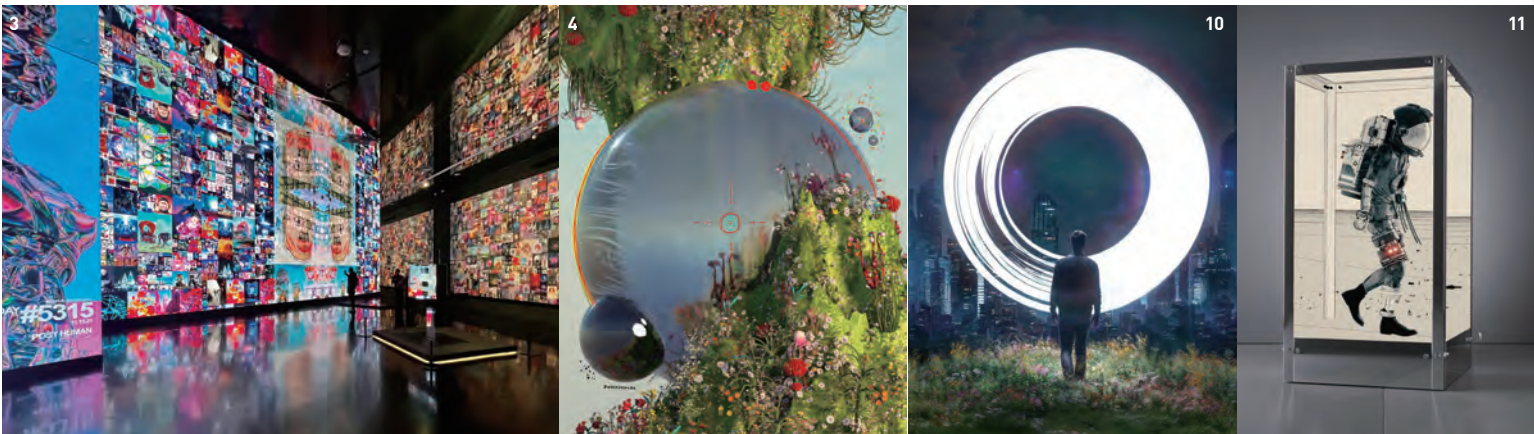
처럼 자주 쓰이는 난징의 옛 이름인 금릉(金陵, 진릉)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더지 미술관(Deji Art Museum)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획전 <An Era in Jinling>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시민의 놀이터, 메가 콤플렉스 내에 자리한 사립 미술관

물이 풍부하고 곳곳에 수목이 우거진 자연환경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의 전초기지로 부각되면서 전성기의 영광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듯한 난징은 인구 1천만의 메가 시티를 향해 가고 있다. 도시의 변화가인 신제커우에 자리한 더지 플라자(Deji Plaza)는 내로라하는 명품 브랜드숍이 들어선 쇼핑몰, 5성급 호텔(리츠칼튼 난징), 다채로운 세계 미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인프라 등을 고루 갖춘 메가 콤플렉스다. 쇼핑몰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 클럽 스타일, 젠 스타일, 몰입형 정원 스타일 등 층마다 다른 디

1 더지 미술관(Deji Art Museum) 입구. 중국 난징의 변화가 신제커우에 있는 더지 플라자 8층에 자리한다. 야간 개장(밤 10시 30분까지) 하며, 현재 ‘꽃’ 전시는 새벽 3시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2 청나라 궁정화가인 펑닝(Feng Ning)이 그린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 더지 미술관의 소장품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가미한 스크린에 펼쳐 몰입형 전시로 선보이고 있다. ‘金陵图数字艺术展’展厅现场@德基艺术博物馆

자인 콘셉트로 꾸며져 있는데, 그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다목적 럭셔리 공간이다.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입구부터 화려한 장식의 복도, 메루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파우더 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소파와 의자로 가득한 라운지, 성인과 아동에 따라 낮타이가 다른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면대 등 여러모로 차별된 면면으로 일부러 찾는 이들이 많은, 일종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더지 미술관은 8층에 자리하는데, 쇼핑몰의 유



동 인구와 더불어 동서양, 그리고 고전과 첨단을 넘나드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문화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평일에는 2천5백 명 이상, 그리고 주말이면 평균 1만 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는다. 연간으로 따지면 1백만 명이 훌쩍 넘는다. 더지 그룹에서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하는 이 사립 미술관은 2017년 문을 연 이후 시민이 다채롭고 깊이 있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왔다. 이를 위해 30년 가까운 시간을 연구와 수집 활동에 쏟아부으면서 무려 2만 점이 넘는 방대한 컬렉션도 꾸려놓았다.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 미술, 각 주제에 기반한 동시대 미술, 디지털 아트 등에 이르는 폭넓은 콘텐츠를 버무리면서 다양한 기획전과 소장품전을 연다.

#‘꽃’ 컬렉션과 첨단 NFT 작가 기획전, 그리고 방대한 불교미술

“더지 미술관은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야깃거리가 많으니까요. 전시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지만, 저희도 관람객의 호기심과 반응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걸 토대로 부단히 연구해나가지요.” 2017년 더지 미술관에 합류한 아이린(Ai Lin) 관장은 늘 전시 덕분에 신선한 관점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이린 관장의 주도 아래 다양한 소장품전과 기획전이 꾸려졌는데, 현재

3 NFT(Non-Fungible Token) 아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미국 아티스트 비플(Beeple, 본명 마이크 윈켈먼) 개인전에서 선보인 대표작 ‘Everydays’ 시리즈. 정치적 소용돌이, 기술 발전에 대한 집착과 공포, 부에 대한 열망과 분노 등 미국 현대 역사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디지털 작품이다. 4 Beeple, ‘In Nanjing(在南京)’, 2023. 5 ‘꽃’을 주제로 한 더지 미술관의 소장품 기획전 <Nothing Still About Still Lifes: Three Centuries of Floral Compositions> 전시 모습.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중순주이자 미술사가 호아킴 피사로(Joachim Pissarro)가 기획을 맡았다. 더지 미술관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꽃 컬렉션은 현재 4백여 점 규모다. 6 René Magritte, ‘La Naissance des fleurs’, 1929. 7 Lalan, ‘Dance of Flowers’, 1970. 8 Sanyu, ‘Vase of Flowers in Blue’, 1956. 9 Piet Mondrian, ‘Chrysanthemum’, 1909. 10 Beeple, ‘FULL CIRCLE.’ ©Beeple 11 Beeple, ‘Human One’, 2021, 221×121.9×121.9cm, Ryan Zurrer Collection. 12 석가모니 두정골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불정궁 내부 모습. 13 솟아오른 봉우리가 소 불을 닮아 이름 붙여진 우수산(牛首山)은 남송 때부터 중국 불교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우수산 부지에는 불정궁과 더불어 사진 오른쪽 위에 보이는 불정탑 등이 있다. ※ 1, 2, 4~11 이미지 제공_Deji Art Museum ※ 3, 12, 13 Photo by 고성연

진행 중인 전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An Era in Jinling>은 누적 1백만 명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디지털 전시로, 미술관 소장품 중 보물인 청나라 궁정화가의 긴 두루마리 회화를 바탕으로 삼았다. 송나라의 생활 풍습을 담아낸 ‘금릉도(金陵图)’가 원본인데, 세 가지 판본 중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을 제외하면 청나라 궁정화가 펑닝(Feng Ning)이 그린 더지 미술관 소장품이 중국에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더지 미술관의 전시실에는 벽 전체를 디지털 캔버스 삼아 이 그림을 생동감 있게 펼쳐놓았는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반이라 자신의 아바타를 스크린에 등장시켜 역동적으로 즐길 수도 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송나라의 인물들과 거리를 유유자적 노니는 느낌이랄까. 필자가 지난해 12월 초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NFT(Non-Fungible Token) 아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미국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개인전이 막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부를 향한 인간의 복잡다단한 감정, 기술 발전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 등을 아우르는 ‘현실’을 실시간 채집하면서 2007년 5월 1일부터 13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한 결과물인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로 2021년 봄 크리스티 경매에서 6천9백만 달러(약 9백90억 원)의 낙찰가를 기록한 화제성 넘치는 작가지만 비플의 미술관급 전시는 세계 최초라고 한다. 이 작품의 현재 버전부터 ‘HUMAN ONE’ 같은 또 다른 대표작, 그리고 난징 방문을 계기로 제작했다는 다양한 비플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꽃 컬렉션’ 전시는 2023년 개막한 주제가 있는 소장품 전시다. <Nothing Still About Still Lifes: Three Centuries of Floral Compositions>라는 긴 제목을 단 이 전시는 동서양을 포용하는 더지 미술관의 화려한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이다. ‘꽃’을 공통분모로 자우키, 산유, 나라 요시

토모 같은 동양 대가의 작품은 물론 클로드 모네, 구스타브 카유보트, 페르난도 보테로, 루이즈 베렐스 등 서양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이 펼쳐져 있다. 아이린 관장의 설명처럼 어쩌면 진부하게 바라보거나 별 생각이 없이 스치던 ‘꽃 그림’은 사실 중국을 비롯한 인류사에서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는 소재이자 주제임을 상기하게 되면서, 의외로 집중해서 보게 된 전시다(누적 관람객 50만 여 명).

더지 미술관의 당찬 행보는 더지 플라자에 머물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난징 시내에는 셴린(Xianlin)에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로 미술관을 짓고 있어 수년 내 또 다른 랜드마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가모니의 두정골 사리가 봉안되어 있어 3대 불교 성지로 일컬어지는 불정궁이 자리한 우수산(牛首山) 부지에도 전시 공간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불교 건축의 색다른 화려함을 품은 불정궁과 미술관의 조화라니, 궁금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글 고성연(난징 현지 취재)



Get

The

List

발렌타인데이와 웨딩 이슈까지. 사랑의 달을 맞이해 지금 주목해야 할 잇템.

PHOTOGRAPHED BY YI JOO HYUK



LOUIS VUITTON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리에디션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LV X TM 핸드백 이스트 웨스트, 시그니처인 무지개 색조로 경쾌하게 재해석한 모노그램 모티브를 입힌 코팅 캔버스에 카우하이드 가죽 소재의 트라밍을 매치했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CARTIER

정형화된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불드한 볼륨감으로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부여한 클래쉬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네크리스. 긴 길이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렉시블 스몰 모델 6천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GRAFF

(위부터)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총 5,777캐럿을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한 틸다의 보우 다이아몬드 워치 9천5백64만원, 화이트 골드 소재 리본 디자인에 총 2.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과 화려함을 갖춘 그라프 틸다의 보우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링 2천3백53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LORO PIANA

코트과 리넨으로 완성한 부드러운 세이프루 여유로운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백. 아이코닉한 기에라 라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양옆 벨트로 여밀 수도, 오므랄 수도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착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4백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TAG HEUER

잭 호이어가 태그호이어의 오랜 파트너인 모나코 그랑프리로부터 이름을 따온 아이코닉한 워치. 대담한 사각형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 밝은 레드 컬러의 미닛 핸즈, 돌 형태의 플라스틱 크리스털로 완성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39mm 사이즈에 태그호이어 칼리버 11로 구동하는 태그호이어 모나코 칼리버 11 크로노그래프 1천78만원
태그호이어. 문의 02-3479-6021



CHANEL

(위부터) 2024-25 크루즈 컬렉션 모델로 컴팅 모티브를 더한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 고트 스킨과 그로그래프 소재의 블랙 토로 완성한 슬랑백, 카메라 케이스를 달은 화이트 넘치는 디자인으로 사이니 랙 스킨과 골드 톤 메탈로 완성한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POMELLATO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밴드 중앙을 3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로즈 골드 소재의 투게더 링,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9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루치올레 세팅한 투게더 링, 로즈 골드 링에 52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부여한 투게더 네크리스, 보다 작은 사이즈로 레이아웃하기 좋은, 로즈 골드 소재에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게더 네크리스 미니 펜던트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OMEGA

전체 폴리싱 처리한 18K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는 5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크라운에는 싱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스피드마스터 38, 그린 PVD 다이얼로 남다른 개성을 자랑하며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330으로 구동한다. 6천6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밴드 3개 위에 0.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트리플 파베 다이아몬드 후프
이어링 1천7백77만원, 1.46캐럿의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슬리메이 스타일의 인게이지먼트 링
1억4천2백만원 모두 **그라프** 아이코닉한
T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라운드
컷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T1 와이드 폴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티파니 아이보리 컬러감과 부드러운
울 소재로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부여하는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so precious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하여. PHOTOGRAPHED BY HWANG WOON HA, PARK JAE YONG

(위부터) 두 밴드를 하나로 엮은 디자인의
로즈 골드 투게더 더블 밴드 링, 중앙을
15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투게더 더블 밴드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열쇠고리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븐티즈 미디엄 링 9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세븐티즈 미디엄 링
5백만원대 모두 **단반**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꾸 드 푸드르
웨딩 링 2백33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꾸 드
푸드르 웨딩 링 5백17만원대 모두 **프레드**
패브릭 샘플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적
디자인의 옐로 골드 소재 쥘 디올 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쥘
디올 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왼쪽부터) 옐로 골드 소재에 그린 아마조나이트와 다이아몬드로
모티브를 완성한 컬러 블라썸 BB
스타 펜던트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소재의 시그니처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각한 옹브레 블라썸
펜던트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코닉한
숫자 5로 디자인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여러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이터널 N°5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세팅해 은은한 매력을
자아내는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격자무늬가 있는 화이트 골드 밴드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코코 크러쉬 스몰 링, 숫자 5 모양의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볼륨감을
선사하는 이터널 N°5 링, 식물 모양의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립 드 샤넬 링,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깃털처럼 가벼운 힐 디테일이 여성스러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드레스 가격
미정 후아산 장 by 소우브라이얼.



(위부터) 작은 다이아몬드가 센터 스톤
주위를 감싸며 화려함을 강조하는
브릴란테 솔리테어 라운드 브릴리언트
링 가격 미정 타사키. 1백5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솔리테어 디자인으로
세팅한 누도 클래식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플레타넘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1캐럿을 세팅해
모던미를 자랑하는 티파니 세팅
웨딩 링 가격 미정 티파니. 화이트 골드
소재에 약 1.0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하고, 밴드에
0.15캐럿 다이아몬드 10개를 세팅한
비 마이 러브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쇼메. 플레타넘 밴드에 여성스러운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솔리테어 스타일로 세팅한
미누 폴 파베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륨감 있는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이어링, 직경 28mm 라운드 셰이프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1.4캐럿을 세팅하고 12개의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로 완성한 티파니 이터니티 워치,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링, 옐로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현대적 미학을 지닌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모던한 스타일의 로렌스 그래프 시그니처 컬렉션 화이트 골드 파베 다이아몬드 레이어링 밴드 8백13만1천원

그래프, 19세기 나폴리 여왕 카롤린 뒤라를 위해 디자인한 손목시계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베젤과 플랜지에 1백1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화이트 머더오브펠 소재 다이얼의 조화가 눈부신 레인 드 네이플 8918 민트 7천1백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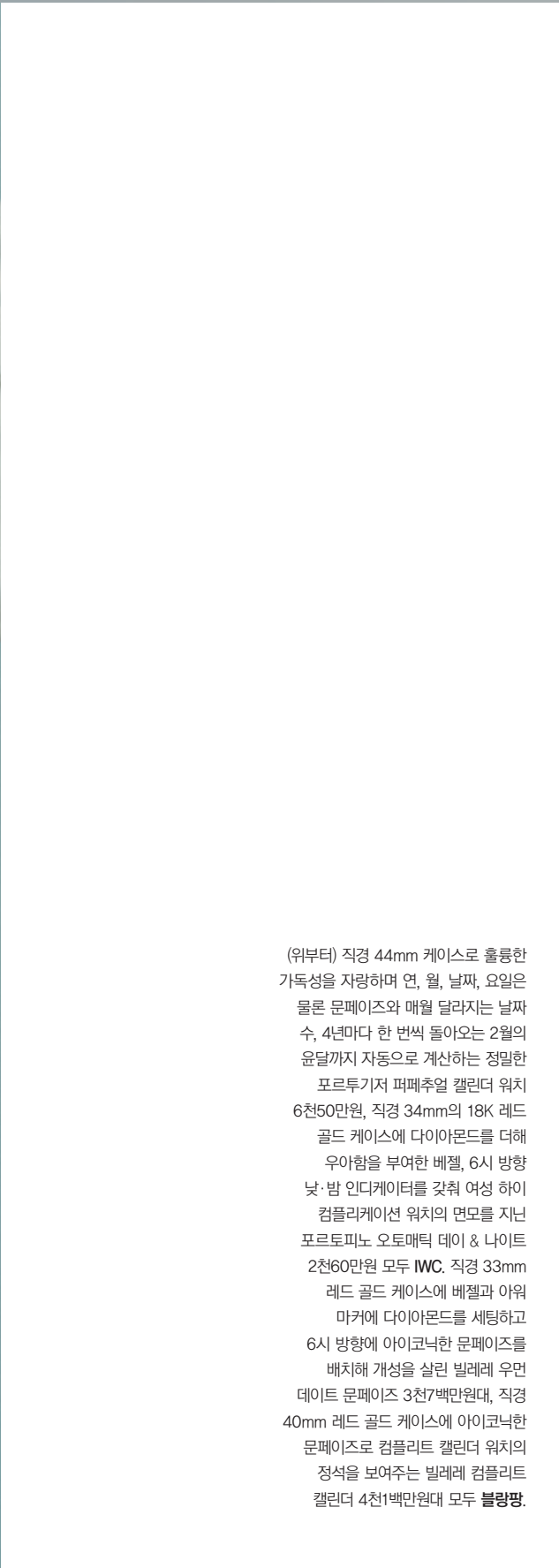
브레게, 타프타 실크 소재로 퍼프 소매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머메이드 스타일 드레스 가격 미정

사피아 by 케일라베넷.



직경 40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크 브라운 스트랩을 매치해 중후한 느낌을 자아내는 피프티샷스 컴플리트 캘린더 골드 6천6백5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위부터) 직경 44mm 케이스로 훌륭한 가독성을 자랑하며 연, 월, 날짜, 요일은 물론 문페이즈와 매월 달라지는 날짜 수,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2월의 윤달까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정밀한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6천50만원, 직경 34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함을 부여한 베젤, 6시 방향 낮·밤 인디케이터를 갖춰 여성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면모를 지닌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데이 & 나이트 2천60만원 모두 **IWC**, 직경 33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아워 마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6시 방향에 아이코닉한 문페이즈를 배치해 개성을 살린 빌레레 우먼 데이트 문페이즈 3천7백만원대, 직경 40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문페이즈로 컴플리트 캘린더 워치의 정석을 보여주는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4천1백만원대 모두 **블랑팡**.



40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랑팡만의 블루 다이얼을 매치해 세련되고 고귀한 감성을 선사하는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로마숫자로 이루어진 아틀리케 아워 마커가 클래식함을 더하고 시침과 분침은 깎아뚫힌 세이지 나뭇잎 형태로 완성했다. 초침은 창립자 예한-자크 블랑팡의 이니셜을 새겨 디테일을 추가했다. 6시 방향에서 아름다운 블랑팡만의 문패이즈를 감상할 수 있다. 4천1백40만원 **블랑팡**



다채로운 컬러 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레이디버드 컬러즈 컬렉션 워치로 이번에는 미드나잇 블루 컬러를 조화롭게 매치했다. 총 27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597개를 세팅한 직경 34.9mm의 케이스는 아름다운 비올과 광채를 자랑하며 6시 방향의 아이코닉한 문패이즈는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칼리버 1163L로 구동하며 4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4천9백95만원 **블랑팡**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직경 34mm
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우아함과 클래식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람데부 나인 & 데이
3천9백90만원 **에거 르클트르**. 옐로 골드
케이스와 스트랩을 더하고 베젤 양옆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케이프 코드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직경 32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약 1.65캐럿의 6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인라이트 칼라
워치 7천6백만원 **피아제**. 로열 오크의
미학적 코드를 23mm 사이즈에 그대로
재현한 로열 오크 미니 프로스티드 골드
쿼츠 워치 5천21만원 **오데마 피게**.
실크 같은 골드 표면과 로즈 윈도에서
영감받은 다이얼 장식이 개성을 보여주는
마크라 워치 4천1백만원대 **부첼라티**.



(위부터) 이탈리아어로 뱀을 뜻하는
세르펜티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네크라스로 재생, 변화, 부활, 불멸,
지해를 상징하며 에너지와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2개의 페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볼륨감이나 형태적으로
리얼함을 선사한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 2개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불가리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불가리. 은은한 파스텔 옐로 컬러의
새틴 드레스 가격 미정 **프라다**.

모델 **OLIVIA JIM** (Directors)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어시스턴트 **김보민**
에디터 **성정민**

그라프 02-2150-2320
티파니 1670-1837
루이 비통 02-3432-1854
포멜라토 02-3143-9486
딘반 02-6905-3361
프레드 02-514-3721
다울 파인주얼리 02-3280-0104
타사키 02-3461-5558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쇼메 1670-1180
다미아니 02-515-1924
후아산 장 by 소유프라이델 02-541-7077
브레게 02-6905-3571
사피아 by 케일라베넷 02-540-1180
에거 르클트르 1877-4201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피아제 1668-1874
오데마 피게 02-543-2999
부첼라티 02-3440-5613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IWC 1877-4315
블랑팡 02-3479-1833
불가리 02-6105-2120
프라다 02-3442-1830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Mandarin Oriental Barcelona)

Savor the Moments!

여행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도시마다 웬만해선 이길 수 없는 '입지'를 갖춘 동네가 존재한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의 심장 바르셀로나에서는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Passeig de Gràcia)가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 토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시 특유의 역동성과 평온함을 자아내며 시원하게 뽐낸 그라시아 거리는 스타일리시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데다, 무엇보다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들이 지척에서 숨 쉬고 있는 막강한 위치로 이 경이로운 도시에 머무는 시간이 몹시 소중한 여행자들에게 최상의 동선을 선사한다. 바로 이 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럭셔리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Mandarin Oriental Barcelona)의 존재가 더 빛나는 이유일 것이다.



‘매일처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경외심으로 채우면서 미소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노들섬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전시 덕분에 우리 나라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토머스 헤더윅이 최근에 내놓은 단행본은 미술과 디자인 과정을 밝고 있던 그에게 건축의 길을 열망하도록 이끈 계기가 된 ‘카사 밀라(Casa Milà)’를 비롯해 안토니 가우디 얘기로 시작한다. 그가 아직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인물로 거듭나기 전인 2009년 초 런던에서 만났을 때도 바르셀로나를 언급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런던이 ‘창조 허브’로 각광받고 있었지만 자신이 어릴 적만 해도 바르셀로나와 파리 같은 ‘빛나는 도시들을 부러워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말이다. 단순히 거리만 비교했을 때 필자에게도 바르셀로나의 그라시아 거리가 파리의 샹젤리제보다 매력적인데, 여기에는 가우디의 자존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Casa Batlló)를 도보로 산책하듯 들를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고, 반세기 넘도록 미완성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해온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경이로운 윤곽을 테라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지닌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는 어떤 경쟁자라도 부러워할 만한 입지를 자랑하는 호텔이다. 이에 더해 이 럭셔리 호텔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이끈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라는 젊은

1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도 핵심인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에 자리한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 사진은 거리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테라스가 딸린 스위트. 2 20세기 중반의 건물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의 파사드와 입구. 3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를 지척에 두고 있고 약간 더 발품을 판다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도보로 접근 가능해 ‘가우디 산책’에 안성맞춤인 위치다. 4 호텔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 인테리어를 맡은 스페인 출신의 스타 디자이너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는 화사하면서도 경쾌한 세련됨을 지닌 공간을 연출해냈다. 5 조식을 비롯해 올 데이 다이닝을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레스토랑 블랑. 6 헤어 스파 브랜드로 명성이 자자한 미러엠 케베도의 노하우를 누릴 수 있는 헤어 스파를 호텔 내에서 운영한다. 객실에도 에메니티 제품으로 비치된 브랜드다. 7 아름다운 수영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웰니스 센터도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의 자부심이다. ※ 이미지 제공_Mandarin Oriental Barcelona ※ 호텔 주소 Pg. de Gràcia, 38-40, L'Eixample, 08007 Barcelona, Spain

는 개인적인 공공증을 유발했다. 한때 ‘디자인계 여왕’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그녀는 밀라노에서 활동하지만 스페인 출신이다.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 건물은 원래 1927년 정계를 위시한 각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만남의 전당’으로 출발했는데, 스페인 내전 시기를 거치면서 허물어졌다가 1955년 사립 은행인 방코 히스파노 아메리카노의 본사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건축가는 마누엘 갈리데스). 2009년 만다린 오리엔탈 바르셀로나로 주인이 바뀐 이 유서 깊은 건물은 레노베이션을 거쳐 2020년 다시 문을 열었다. 건물 외관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에게 인테리어를, 베티 피게라스(Bet Figueras)에게 정원 등의 조경을 맡겼다. 활기찬 그라시아 거리에 접한 호텔 입구에는 3개로 이뤄진 정문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는데, 카탈루냐 출신 예술가인 프레데리크 마레스(Frederic Marès)가 빚어낸 조각이 돋보인다.

‘가우디의 도시’에 어울리는 최상의 위치와 서비스 세기의 창조자인 가우디의 자취를 비롯해 인상적인 파사드가 눈길을 절로 사로잡는 여러 명품 브랜드의 매장이 줄지어 있기에 호텔 외관 자체는 그리 튀지 않고 차분히 중심을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점차 검검의 매력에 드러난다. 입구 안에 놓인 브론즈 색상의 커다란 알루미늄 스크린부터 브랜드의 상징인 ‘팬(The Fan)’의 바르셀로나 버전인 갈색 나무의 부채 장식물까지, 곳곳에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가 담아낸 메시(mesh) 느낌의 모티브가 계속 나타난다. 하문을 직접 얹게 잘라주어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조식을 비롯해 올 데이 다이닝을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레스토랑 블랑(Blanc) 입구에도 화사하고 경쾌한 울동감을 이어주는 메탈 소재의 하얀색 격자 프레임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은행 건물이라는 역사

에 착안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재치 있는 뱅커스 바(Banker's Bar), 시내 풍경을 감상하면서 페루 요리와 흥미로운 각테일을 맛볼 수 있는 루프톱 레스토랑 테라(Terrat), 카르메 루스칼레다(Carme Ruscalleda)와 라울 발람(Raül Balam)이라는 모자(母子) 세프가 운영하는 격조 있는 미술관 2스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모멘츠(Moments) 등 호텔 내부의 F&B 공간은 저마다의 색깔을 지니면서 즐거운 조화를 이룬다. 다분히 현대적이지만 전통의 혼이 배어 있고, 따스한 친밀감과 잔잔한 리듬감을 머금은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의 특유의 감성은 바르셀로나의 햇살이 깃들면 극강의 평온함을 자아내는 20개 스위트와 1백 개의 객실 디자인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라시아 거리와 미모사 가든(정원) 전망을 갖춘 경우에는 더 매력적이다. 호텔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메뉴도 놓치지 말자. 한국에도 진출한 브랜드 ‘미러엠 케베도’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헤어 스파, 튀르키예식 하마를 비롯해 때로는 ‘구루’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꾸리는 다양한 테라피와 강좌가 구비되어 있는 웰니스 센터는 1,000㎡(약 3백 평) 면적을 자랑한다. 이에 더해 거리로 나가면 토머스 헤더윅이 강조했듯 그저 건축을 느끼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경험만으로도 전율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 산책이 바로 펼쳐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 고정연



Effortless Glow

바를 때는 촉촉, 밀착된 후에는 보송보송. 은은한 광채는 덤이다. 결점 없는 매끄러운 피부를 위한 자동 완성 가능한 요즘 쿠션&피니시 파우더.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버버리 뷰티 비온드 웨어 퍼펙팅 매트 쿠션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롱래스팅 쿠션. 대나무 파우더와 핀아니루 꽃 추출물을 함유해 번들거림을 잡아준다. 특히 수분 유지에 탁월한 히알루론산 덕분에 건조함 없이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14g 9만8천원. 문의 080-850-0708

결랑 배워트 골드 스킨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퍼펙션 루스 파우더 24K 골드와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함유해 피부의 윤휴를 정리하고 윤기를 더한다. 총 네 가지 셰이드로 출시되며 파우더 퍼프도 함께 제공한다. 35g 13만1천원. 문의 080-343-9500

콜레드보 보떼 리파이닝 프레스드 파우더 N 모공은 완벽히 가리고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매만져주는 압축 파우더. 인스턴트 리터치 포뮬러로 건조함을 최소화하고 방금 메이크업한 듯 보송보송한 피부로 연출해준다. 5g 16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 & 플랑 드 파리 리미티드 에디션 케이스 스킨 글로우 쿠션이 디올 하우스의 역사를 상징하는 플랑 드 파리 패턴 케이스를 입었다. 플로럴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 명김 없이 화사한 광채를 선사한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케이스는 매트 쿠션과도 호환 가능하다. 쿠션 리필 13g 6만3천원, 케이스 4만4천원. 문의 080-342-9500

발렌티노 뷰티 고-쿠션 글로우 랑데부 더 골드 에디션 우아한 광채 피부를 원한다면 글로우 쿠션이 최상의 선택지다. 섬세한 입자가 피부에 고르게 밀착되어 윤기를 더하고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되기 때문. 12g 11만4천원. 문의 080-835-0074

아르마니 뷰티 디자이너 워터-안스 파우더 베이스 메이크업의 유지력은 피부 속 유분 조절로 좌우된다. 지난가를 새롭게 탄생한 아르마니 루스 파우더는 윤휴를 정리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부여한다. 마치 미스트를 뿌린 듯한 쿨링감이 특징. 15g 9만5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김하얀

NEW LIPSTICK

샤넬 루주 코코 방 샤인 758 블라싱 핑크 퍼스널 컬러 관계없이 어떤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 과하지 않은 컬러감과 촉촉한 보습력뿐 아니라 은은한 생기로 자주 손이 간다. 3g 5만1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찬바람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회복해줄 스킨케어부터 설렘을 배가하는 향수까지 만나보는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NEW CREAM

에이피 뷰티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를 쫘뼛하게 감싸안은 듯 가볍고 밀리지 않는다. 50ml 41만5천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성정민

디올 뷰티 글로우매니아 리미티드 에디션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053 핑크매니아 입술에 바르는 순간 플러핑 효과를 더해주는 진주빛 핑크 컬러 립글로스. 6ml 5만1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메종 마르지엘라 프래그런스 레플리카 애프터눈 달라이트 EDT 비터 아몬드 에센스, 바닐라 추출물을 함유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100ml 21만5천원. 문의 080-363-545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구찌 뷰티 마스크라 르 마그네티즘 단모가 부착된 안쪽과 단모와 중모가 혼합되어 부착된 바깥쪽으로 구성된 내장 브러시가 뿌리부터 컬과 볼륨을 선사한다. 7.5ml 6만6천원. 문의 080-850-010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페이스 오일 겨울철만 되면 오일 사용에 진심인 편. 무려 여덟 가지 오일을 블렌드한 고농축 성분 덕분에 유연하고 빛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었다. 30ml 37만5천원. 문의 02-6904-0589 _by 에디터 윤자경

플레드보 보메 프레셔스 골드 바이탈리티 세럼 피부에 생기를 선사하는 오일을 캡슐화한 레티놀 아세테이트를 함유해서인지 매일 사용했다니 자연스러운 광채와 생기가 생겼다. 40ml 35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윤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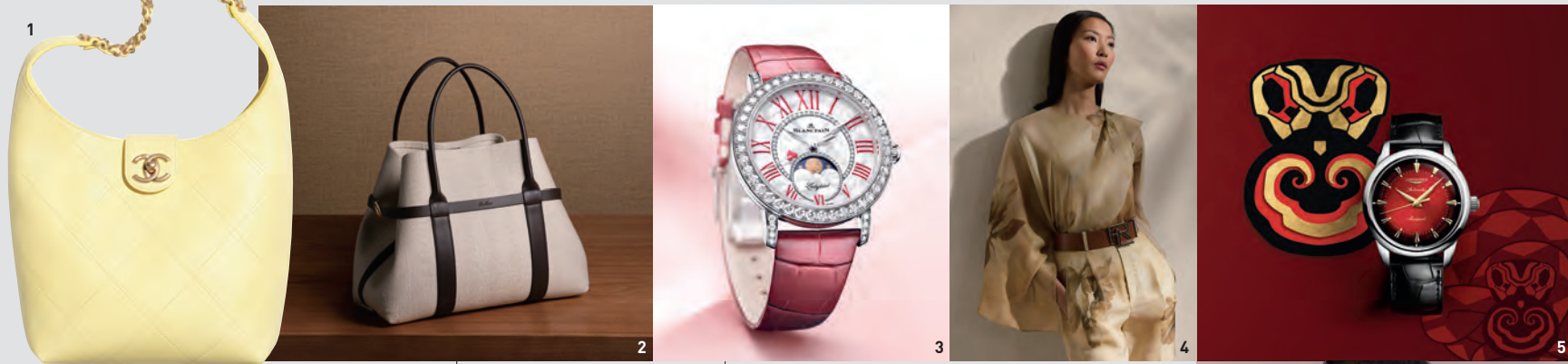
아베다 스칼프 솔루션 하이드레이팅 헤어 앤 스칼프 마스크 일주일 1~2번 정도 컨디셔너 대신 사용했다니 머릿결은 물론 건조한 탓에 민감하고 땅기는 느낌이 들었던 두피까지 건강해진 듯한 기분이다. 150ml 6만8천원.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윤자경

NEW CUSHION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 C105 뱀의 해를 기념해 선보인 파이톤 패턴 디자인이 아이코닉함을 더하고 은은한 광채감을 주어 만족스러웠다. 12g 11만8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신정임

조 말론 런던 케어 컬렉션 리바이탈라이즈 익스플리에이팅 슝 고대 로마의 목욕탕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의 비누로 에센셜 오일과 레몬 껍질, 월계수 등을 함유해 가볍지만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준다. 100g 3만1천원. 문의 1644-3753 _by 에디터 성정민

※ 상영관(30대 미만관) : 윤자경(30대, 권정, 신정민(20대, 박현정, 김보민(20대, 지복현(



1 샤넬 2025 S/S 프리 컬렉션 샤넬에서 1990년대 미국 서부 연안의 감성을 모티브로 2025 S/S 프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진주를 사용해 재킷의 브레이드, 블라우스의 칼라와 소매 등에 포인트를 줬으며, 백과 액세서리에는 파스텔컬러를 사용해 보헤미안과 프레피한 감성을 더했다. 문의 080-805-9628

2 로로피아나 기에라 쇼퍼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의 기에라 라인에서 새로운 토트백 기에라 쇼퍼를 출시했다. 측면에 잠금 디테일로 외형 변형 가능하며, 스몰과 라지, 27인치 사이즈로 제작했다. 포실, 아즈키 빈즈, 라이트 트랜치, 딥 쿠멜 등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200-7799

3 블랑팡 2025 발렌타인 레이디버드 컬러즈 블랑팡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2025 발렌타인 레이디버드 컬러즈를 출시했다. 단 14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제품은 발렌타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큐피드의 화살이 꽃힌 하트 초침이 특징이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블랑팡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79-1833

4 랄프 로렌 말로리 플로럴 실크 거즈 램 톱 & 트레이시 플리츠 쇼츠 랄프 로렌에서 다가오는 봄에 2025 프리-스프링 시즌의 톱과 쇼츠를 제안한다. 플로럴 모티프를 프린트한 실크 거즈 소재로 제작한 비대칭 슬리브 디자인의 말로리 플로럴 실크 거즈 램 톱과 양쪽에 세로로 들어간 플리츠가 특징인 트레이시 플리츠 쇼츠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5 론진 뱀의 해 기념 에디션 출시 론진에서 뱀의 해를 기념해 중국 아티스트 우지옌안과 협력해 2천 25개 한정으로 콘셉트 헤리티지 뱀의 해 에디션을 선보였다. 중국의 설화 '백사전'에서 영감받아 신

Showroom



성한 뱀이 보물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영지버섯을 물고 있는 신비한 뱀의 모습을 디자인해 케이스 백에 새겼으며, 그래픽에선 레드 다이얼이 특징이다. 문의 02-3479-1940

6 랑방 파리 아르페주 링 에스메트릭 탑 프랑스 패션 하우스 랑방 파리에서 비대칭 슬리브리스 '아르페주 링 에스메트릭 탑'을 선보였다. 연도랑색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한쪽 어깨의 실버 아르페주 링 장식이 특징이다. 라이트 트릴 캐디 소재를 사용해 유연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02-3438-6186

7 포멜라토 투게터 컬렉션의 새로운 디자인 출시 포멜라토에서 아이코닉한 원형 디테일을 모티브로 한 투게터 컬렉션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공개했다. 슬라이딩 본드를 미니 사이즈로 재해석한 투게터 네크라스와 이번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레이슬릿, 각기 다른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을 적용한 링 등 3종의 주얼리로 출시한다. 문의 02-3143-9486

8 시세이도 리워드 파운데이션 공병 프로모션 시세이도가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뷰티 어워드 수상을 기념해 리워드 파운데이션 프로모션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 중이다. 시세이도 전국 백화점 매장에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공병을 가지고 방문하면 시세이도 리워드 파운데이션을 10% 할인받아 구매 가능하다. 문의 080-564-7700

9 골든구스 2025 S/S 발렌타인 컬렉션 스니커즈 공개 골든구스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 시그니처 라인인 볼스타 스니커즈를 새롭게 해석해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화이트 레디에 레드 스타 로고가 특징이며 작은 크리스탈로 'LOVE YOU' 레터링을 수놓아 유니크한 무드를 자아낸다. 발렌타인 컬렉션 스니커즈 매장 구매 시 레드 크리스탈 핫팩스, 레드

10 디올 뷰티 기프트 셀렉션 제안 디올 뷰티에서 새해를 맞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향수 기프트 셀렉션을 제안한다. 로사렘타이트™ 성분을 함유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디올 프레스티지 라인, 17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힌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프루티 플로럴 & 우디 향의 '미스 디올 퍼퓸과 꾸뛰르 솔리드 퍼퓸 'NEW 미스 디올 퍼퓸 미니 미스 솔리드 퍼퓸' 등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342-9500

11 바세론 콘스탄틴 히스토릭 222 바세론 콘스탄틴이 창립 2백70주년 기념으로 히스토릭 222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히스토릭 222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로 선보였다. 무브먼트를 상단에서 장착해야 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크루 다운 베젤로 120m의 방수 성능과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다. 문의 1877-4306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